

## 기생과 희생

계산월

기생과 희생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또 없을 줄 안다.

생각해 보라! 무엇보다도 귀중한 저의 몸을 희생하여서 남을 살린다든지 남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기생은 천한 것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라 하여 비소와 냉대로써 대하지마는 그러나 기생처럼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별문제로 하고 희생의 정신이 풍부한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줄 안다.

서울장안에 기생이 백 명 있다하자 그 백 명중에 자기의 마음이 올곧지 못하여 기생이 된 사람이 그 몇이나 될 것인가 모두 운명이다 하겠지마는 그 중에 대다수는 혹은 그의 늙은 아버이를 위하여 혹은 나이 어린 그의 동기를 위하여 화류계에 몸을 던져 가을 바람에 시달리는 나무 잎과 같이 아침의 꽃과 저녁의 달을 한과 눈물로써 맞이하게 되니 그 눈물 속에는 실로 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이 귀중한 희생의 정신이 잠겨있는 것이다.

그 중에 어떤 이의 말을 들으면 장래의 양가의 부녀자가 되고 사회의 일꾼이 되려고 형설의 공을 쌓았으나 그러나 원수의 금전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학업을 폐지하게 되고 따라서 일가의 희생이 되어서 화류계에 몸을 던

지었다 하며 또 그 중에 어떤 이의 말을 들으면 병든 늙은 아버지의 고생살이와 나이 어린 동기들의 주립을 구하기 위하여 유두분면의 기생이 되었다 하니 들을 때 - 저으기 뜻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 뉘라서 한줄기의 뜨거운 동정의 념과 감격의 눈물을 뿌리지 않으랴?

여러 가지 점으로 남자는 강한 것 여자는 약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어떤 문호는 “약한 자여 너의 이름은 여자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의 우리사회를 통찰해보면은 육척장부의 당당한 남자로서 별이를 하여서 그의 집을 유지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조상이 남겨준 누만의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비록 약한 것 천한 것일망정 기생은 어느 계급의 사람에 비해서 본다면 훌륭한 효녀요 위대한 여장부라 하여도 그리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주의할 일이 있다. 그것은 희생의 정도문제이니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부모나 형제가 친구를 구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몸을 살리고 자기의 행복을 차린 뒤의 일이지 전혀 자기를 죽이고 전혀 자기의 행복을 돌아보지 않고 남만 위해서 산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자기를 망각자라고 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생에는 희생이라는 미명에 취하여서 자기자신의 개성까지도 자기자신의 행복까지도 잊어버리는 수가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옳다할 수는 없는 것이니 자기 몸을 희생하여서 부모나 형제를 살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반면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자신의 개성의 존중과 행복의 존재를 망각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내 일찍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갑이라는 어떤 기생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을이라는 그의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다. 그런데 흔히 세상에 있듯이 을이라는 그의 애인은 한 달에 기십원의 월급을 타서 근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었다.

갑이라는 기생은 그 을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였고 을이라는 사람도 또한 그리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돈에 있었다. 갑이 을과 같이 단란한 가정을 꾸미며 가자면 돈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서로 밥을 굶어도 좋겠다는 사이니까 문제가 없다하겠으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실로 기생 갑의 가족이었다.

갑에게는 그의 부모와 철모르는 동기를 합하여서 십 여명의 큰 식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갑이 만일 살림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그의 남편이 갑의 식구를 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박봉에 그러한 여유가 없었다. 이에 비극은 일어났다. - 사랑과 돈 - 이 두 가지 중에 방황하는 갑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을 위하여 가족을 버릴까? 가족을 위하여 사랑을 버릴까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모를 위하여 희생을 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어서 갑은 어쩔 수 없이 그의 품에서 떠나가고 말았다.

그후 불과 수년에 갑은 세상의 모진 바람에 시달리고 부대끼는 것이 병이 되어서 실낱같은 목숨이 수척한 몸뚱어리에 겨우 붙어있을 뿐이다.

몸은 작고 수척하고 신병은 나날이 침중하여져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를 몰랐었다.

몸이 성한 때에는 그래도 잊을 수가 있었지만은 몸에 병이 무거워지고 주위가 쓸쓸하여져서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생각나는 것은 자연 지나간 날의 사랑인 을의 일이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잠꼬대같이 을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한번 가버린 을이 다시 어디를 올 수가 있으랴!

이리하여서 한 많은 슬픔을 껴안고 갑은 쓸쓸하게도 외로이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다 한다.

희생은 인생생활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아름다운 그

것이 오히려 불미한 것이 되기 쉬운 것이니 남의 희생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처지와 행복을 회고하여 신중히 또한 냉정히 생각한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